



마가 스님과 자비명상 순례단은 7월 19일 전통사원 파로종을 방문해 부탄 스님에게 가사를 공양했다. 부탄에서 스님들이 입는 가사는 한 벌에 35달러로 고가에 속한다. 때문에 가사 한 벌로 생활하는 부탄 스님들에게 가사공양은 더없이 좋은 공덕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가사는 여래의 옷이며, 보살의 큰 옷이다. 이 가사를 수하는 자는 큰 복전이 되며, 가사를 조성하는데 동참한 사람은 수승한 과보를 쉽게 얻는다"고 말한다.



파로종 사원의 스님들이 순례단의 보시한 대중공양을 하고 있다.



순례단의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승무를 선보였다.

행복지수 1위... 국민 대다수 멘토는 '불교'

마가 스님, 사부대중과 부탄 성지순례... 300명 스님에 가사공양

네팔 동쪽, 히말라야 오지에 위치한 작은 왕국 부탄은 국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산악 지대로 인구의 75%가 티베트불교를 믿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부탄은 불교가 생활 깊숙한 곳까지 배어있다. 부탄의 국왕은 화려한 왕궁을 정부에, 왕가의 토지는 무상으로 농민에게 나눠주고 경호원 없이 운전하는 검소함을 몸소 보여줘 국민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부탄의 국민들 대다수는 멘토가 있어 정신적 의지처로 삼고 철저한 연기법과 인과법을 믿으며 살고 있다.

힐링멘토로 잘 알려진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과 사부대중 28명이 7월 17일~23일 불교국가 부탄으로 색다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는 불교성지순례만 하는 기존 여행과는 달리, 부탄 스님에게 가사와 음식공양을 올리는 기념식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7월 17일 인천을 출발한 순례단은 18일 도착해 국립기념탑, 탕가 미술학교, 창강카 사원, 타시초종 사원, 체리곰파, 질루카 한중절(비구니)사찰, 청동 석가모니 등을 순례한 뒤, 20일 가사 공양을 올릴 파로종 사원으로 이동 했다. 파로종 사원은 부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200여 부탄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다.

순례를 이끈 마가 스님은 "행복지수 1위인 부탄의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지 불자들과 함께 직접 경험하기 위해 순례를 다녀왔다. 부탄 국민

들은 이번 삶을 내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선을 베풀며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부탄 스님뿐 아니라 국민 모두 타인의 시선에 신경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려고 애 쓰기보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이 진정한 수행자와도 같았다. 많이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가 스님은 "순례에 참여한 불자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부탄 스님의 가사와 대중공양에 써달라며 보시를 해본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순례에 참가한 이경미 불자가 부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것이다.

7월 18일 둘째 날

부탄 파로 공양에 도착한 우리를 길레 스님이 맞이했다. 길레 스님은 한국을 4차례 다녀갈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있는 스님이다.

파로에서 부탄 수도인 팀푸로 이동해 팀푸의 상징인 국립기념탑을 관람했다. 탑은 1974년 부탄 3대 왕인 지그메 도르지 왕축의 명으로 만들어져 전통 티베트 양식을 담았다. 늦은 오후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거나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다. 부탄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 국가를 비롯해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부처님께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한다.

부탄과 티베트의 산에는 어디를 가나 오색천연

'룽다'가 나부끼고 있다. 오방색 천이 걸리는 곳과 색에 따라 고엔다(집), 마니다(방자, 병자), 룽다(부처님 말씀), 라다(사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오방색의 천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에 걸어 놓고 세상 널리 그 말씀이 퍼지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비는 것도 있고, 병자의 쾌유,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도 있었다. 어디를 가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

창강카·체리곰파 등 5박 6일간 순례 파로종, 1647년 창건된 부탄 대표사원 300여 스님에게 가사 및 대중 공양 순례단 중 비구니 스님 '승무' 선보

람에 실려오는 법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아이들의 성장에 영감이 있다고 믿는 창강카 사원으로 향했다. 법당 안에는 많은 스님과 아이를 안고 앉아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후 팀푸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붓다부에 올라 69m의 청동 석가모니 좌상을 참배했다.

7월 19일 셋째 날

우리는 부탄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하기 위해 팀푸에서 파로종으로 이동을 했다. 파로종은 1647년 창건된 전통 사원이다. 파로는 지역 이름을 말하며 좋은 사원 기능과 행정 기능을 가진 복합 건물을 말한다.

부탄 스님에게 외국인이 가사공양을 올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며 파로종 스님들도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법당에는 이미 주지스님과 대중들이 모여 좌정해 있었다. 우리가 부처님과 부탄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난 후 부탄 스님들의 기도로 가사 공양 의식이 거행됐다. 장엄한 염불소리와 함께 가사가 올려졌다. 우리 순례단의 한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는 승무를 선보여 부탄 스님들에게 새로운 공경의 찬탄의 모습을 보여줬다.

7월 20일 넷째 날

'호랑이의 등지'를 뜻하는 탁상사원으로 향했다. 티베트와 부탄에 밀교의 전통을 남긴 파드마삼바바가 수행했다고 전해진 곳으로, 세계의 신비한 10대 사원에 선정된 만큼 유명한 곳이다. 해발 3024m 높이에 절벽에서 솟아난 듯 걸려있는 사원의 풍경이 신비스러움을 더했다.

탁상사원에 이르는 길에는 룽다가 끝없이 이어져 펼쳐지고 있다. 위태로 보이기까지 한 사원은 거대한 폭포수와 함께 자리하며 모든 번뇌를 씻어 내주는 듯, 자연의 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탁상사원은 부탄인들이 가장 성스러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메라, 휴대폰 등 모든 소지품을 맡겨두고 사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법당에 올라 예불을 올린 후, 마가 스님의 인도로 스님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담아 재가불자들을 한명씩 꼭 안아주었다. 그대로 차별 없는 부처님 세계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몸으로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진전하면서 목격한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부탄=이경미(순례참가단원)



세계 신비한 10대 사원에 선정된 탁상사원



파로종 불단에 예불의식을 거행하는 순례단 스님들.



부탄 수도 팀푸의 상징인 국립기념탑에서 예를 올리는 스님들.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이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초, 성묘, 제사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월력으로 극락환생 발원. 잘못된 못자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 납골묘, 납골당 및 문중사당 제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IC에서 2Km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 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장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려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